

2025
Vol. 1
통권 제20호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SEJONG — INSIGHT

세종인사이트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SEJONG RESEARCH INSTITUTE

2025
Vol. 1



CONTENTS

- 01 세종시 대학 유치 및 활성화 방안 | 김 성 표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02 세종시 환경보건정책 추진과제 | 이 윤 희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03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의 특징과 유형 | 이 자 은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I. 논의 배경

● 학령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가속화

-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 변화, 그리고 고물가, 보호무역 강화 등 경제구조의 변화는 대학과 대학 졸업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되고 있음
- 세종시 차원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행정수도, 미래전략도시 등 시의 특성을 살리고 기업과 대학의 수요에 기반한 대학 유치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 세종시의 대학 유치 여건

- 세종시는 중앙 행정기관과 국책 연구기관이 집적하고 있고,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법원 등이 입지하게 되면 행정, 입법, 사법 기능 확대와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연구와 교육 기능 활성화가 예상됨
- 세종시의 경우 4생활권 대학부지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행복청·NH가 보유하고 있어 부지 제공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 새로운 교육방식을 채택하는 대학교의 출현

- 미네르바 대학교는 기존 대학 입시 시스템과 달리 개인의 성취에 기반한 독립적인 입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과정도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수업 전에 과제와 논문을 요구하고 토론하는 방식을 채택
- 태재대학교도 그룹 토론과 개별 면접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 교육과정도 혁신 기초, 전공, 현장 실천 과목으로 구성됨
- 능동적인 수업 방식인 액티브 러닝, 현장 중심의 글로벌 경험 학습을 통해 도시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모색

● 도시재생, 산학협력, 개발을 통한 대학과 지역의 연계

- 보스턴대학과 와세다대학의 경우 쇠퇴하는 주변 지역의 시설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대학 기능으로 전환하면서 주변 지역을 활성화함
- 교토대학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을 연계하는 산학협력 컨소시엄 조직을 발전시켰으며 대학생들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함
- 건국대학은 캠퍼스의 경계를 확장하여 대규모 R&D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캠퍼스를 개방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임
- 연세대학도 송도지구에 입지하여 지역경제의 동력으로 연계됨

II. 여건 분석

● 새로운 기술, 사회,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따라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시장에서는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을 넘어 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고 있음
- 대학의 인재상은 문제 해결형에서 문제 창조형으로, 전문 지식인에서 다양한 지식의 융합 인재로, 개인 성과주의에서 관계 성과주의로 변화하고 있음
-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도 문제해결 과정, 문제해결 능력, 컴퓨팅 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해질 것임
- 교수 방법에서도 깊이 있는 사고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심층 학습과 학문 간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 교육 중요성이 증가함
- 대학 체제도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함
-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 필요

●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을 연계, 글로벌 대학 육성

- 지자체의 대학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되는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인재양성-취·창업-정주'가 이루어지는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하고 있음

● 학령인구, 대학교 학생 수, 대학교 수도 감소하는 추세

- 전국의 학령인구는 1980년대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30년 1,879,000명에서 2040년에는 1,192,000명으로 추정됨
- 세종시의 대학교 학령인구는 2030년 89,000명으로 증가, 2040년 85,000명으로 감소, 2050년에 99,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대학교 학생 수는 2014년 2,947,495명에서 2023년 2,393,128명으로 554,368명(18.8%) 감소하였으며, 대학교 수는 2019년 340개에서 2023년 335개로 감소



1) 2024년 정책과제 〈세종시 대학 유치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기반하여 작성

세종시 대학 유치 및 활성화 방안

● 세종시에 있는 주요 대학의 입학정원은 4,653명으로 예상

- 입학정원은 홍익대 1,291명, 고려대 1,427명, 한국영상대 1,049명, 공동캠퍼스 886명으로 총 4,653명으로 예상됨. 전공 분야별로 보면 공학 962명, 정보통신 500명, 약학 및 의학 584명, 경상 554명, 영상 및 미디어 1,360명, 행정, 문화 및 스포츠 688명으로 예상

[표 1] 공동캠퍼스 모집 정원

구분	대학	편제정원(명)	2024년 입학정원(명)	개교 (예정)
입 대 형	서울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72	36	2024년
	KDI (행정·정책대학원)	170	170	
	충남대학교 (의대·대학원)	400	400	
	충북대학교 (수의대·대학원)	150	150	
	한밭대학교 (AI/ICT 등 대학·대학원)	200	130	2026년
분 양 형	충남대학교 (AI/ICT 등 대학·대학원)	800	-	2029년
	공주대학교 (AI/ICT 등 대학·대학원)	599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행정전문대학원, IT·AI 관련 대학)	790	-	

III. 정책 제언

●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대학

- 4차 산업혁명과 사회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세종시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유치와 육성이 필요함
- 문제 창조형 인재,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는 인재, 관계 성과주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유치와 육성이 중요함
- 대학이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문적, 기술적 솔루션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 필요

● 국가 정책, 지역사회와 연계된 대학 경쟁력 강화 필요

- 국가 정책과 연계한 대학 육성이 중요함
-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교육개발특구 등과 연계한 대학 유치 및 활성화 방안이 중요함
- RISE 사업, 글로벌 대학 30 등과 연계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캠퍼스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함

- 신성장산업 육성과 연계한 대학 유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정보보호, 디지털콘텐츠, 방송영상미디어, 양자 산업과 연계한 대학 유치 및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지역사회, 대학, 기업을 연계하는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대학과 유관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적극적인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함

● 새로운 유형의 공동캠퍼스 모델 구상 필요

- 산학연관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캠퍼스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관내에 위치한 3개 대학(홍익대 세종캠퍼스, 고려대 세종캠퍼스, 한국영상대학교)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합동사무처 설치, 대학 연합축제, 도서관 상호대차, 유학생 공동 유치, 공유 강의, 학교 시설물 공동 이용, 셔틀버스 공동 이용, 기숙사 공유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함

● 지역사회대학을 통한 평생교육 기능 강화

- 지역사회대학을 통해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제도권 교육기관, 민간 직업훈련기관, 산업현장 간의 벽을 허물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강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학습공동체 구축 필요

● 문화시설 확충, 교통 접근성 제고 및 문화예술 분야 연계

- 대학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을 갖추어야 함
- 문화예술 분야 대학을 유치하여 인력 양성과 채용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성공 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표 2] 세종시 대학 유치 및 활성화 전략 및 과제

전략	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대학	계약학과 활성화
	사내대학 유치 및 설립
	상인대학 설립 및 유치
	폴리텍대학교 유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대학	한국전력원자력대학교대학원 유치
	기후위기 공유대학 유치 및 설립
국가 정책 및 지역 사회와 연계되는 대학	글로벌 대학 30 육성
	RISE 사업 활용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대학 유치 및 활성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대학 유치 및 활성화
	세종 한두리 캠퍼스
	지역사회대학 추진
신성장산업과 연계되는 대학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대학 유치 및 활성화
	복합캠퍼스를 활용한 원팀빌리지 조성
	한국예술종합학교 분원 유치
관내 대학 경쟁력 강화	세종시립대학교 설립 검토
	세종시법 개정 공동캠퍼스 운영 활성화 및 미분양 필지 분양



I. 논의 배경

●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

- 폭염, 초미세먼지 및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보건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관심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을 통한 환경성 질병부담 완화를 목표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을 수립함
- 그간 충남 등 몇몇 지역에서만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2022년 처음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계획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시민들의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크지 않음

● 세종시의 환경보건계획

- 세종시 역시 2022년 말 환경보건계획이 최초 수립되었으나, 세종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 현황분석 및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은 미비하였음
- 이에 세종시는 환경보건 현황 및 여건에 대한 진단을 통해 맞춤형의 환경보건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강화된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외 환경보건 정책동향

- WHO의 환경보건정책 동향과 시애틀시의 Breathe Easy Program 사례는 지역 정책 전반을 보건의 관점에서 재편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환경보건 정책은 환경보건 매체 관리 정책 및 도시개발 정책, 취약계층 복지 정책 등 타 부서의 정책과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따라서 세종시에서 시행하거나 기획하는 정책이 개선하고자 하는 원인행위를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그 결과가 시민의 건강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정책의 긍정적 목표를 환경보건 개선과 맞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종시 환경보건 영향 주요 환경요인

- 세종시의 환경보건 관련 언론 이슈 분석에서 '대기오염' 영역 중 '미세먼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는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환경보건 우선순위에 해당하며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주요 환경요인으로 판단됨
- 또한 연관 검색 건수가 많은 '화학물질'과 국내외 정책동향 및 미래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도시의 특성이 있는 세종시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환경요인으로 '빛공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세종시의 환경 관련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음·진동' 역시 세종시가 주목해야 할 환경요인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세종시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환경유해인자는 '대기오염', '실내공기질', '소음',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기후변화(이상기후)'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II. 대내외 여건분석

● 국내 환경보건 정책동향

- 중앙정부의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요자(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서비스강화방향을 고려했을 때, 세종시는 인구학적으로 지역특성상 읍면지역은 고령자 비율이 높으며, 동지역은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민감취약집단 중심의 정책 발굴 및 시행 등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예측이 어려운 미래환경 변화에 따라 환경보건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한 한편, 세종시의 경우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기반(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경보건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환경보건시스템으로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환경보건 DB 구축·관리,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환경보건 취약지역 분석), 환경보건 지표를 개발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III. 세종시 환경보건 현황 및 시사점

- 세종시의 환경유해인자로 '대기오염', '실내공기질', '환경소음',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이상기후(기후변화)'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매체별로 환경보건 측면에서 우려되는 인자는 대기오염(초미세먼지 농도, 오존 농도), 환경소음,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이상기후(폭염)로 판단됨



1) 이 글은 2024년 본 연구원에서 수행된 정책과제 <세종시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발굴> 연구결과에 기반하고 있음

세종시 환경보건정책 추진과제

대기오염

-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종시의 지리적·기상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고농도 이벤트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오존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아울러 환경성질환 발생 현황에서도 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 환자 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호흡기 질환과 매우 연관성이 높은 대기오염은 세종시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한 환경유해인자로 판단됨

환경소음

- 소음은 가장 많은 환경민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특성상 도시확장에 따른 공사장 등에서의 생활소음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큼

빛공해 및 유해화학물질

- 세종시 빛 방사 초과율은 70% 내외로 높으며, 향후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라 초과지역 역시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생활권 조성에 따른 도시성장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생활밀착형 사업장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예: 음식점 업종 증가), 이에 따른 시민 건강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상기후

- 세종시 폭염일수는 전국 대비 높으며, 미래 전망에서도 지속 증가추세가 예측되어 여름철 건강영향 대비가 필요함

세종시 환경보건계획의 수정계획 수립·추진

- 기존 수립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계획'의 세부과제 중 지속 사업 11개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규사업 11개로 재구성하여 총 22개 세부사업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제안함

환경보건기반 구축 관련 사업 우선 추진

- 세종시는 환경보건기반 구축을 강조하여 우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환경보건정책 과제 중 '세종형 환경보건시스템 구축' 및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환경보건 전담인력 지정' 등의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함

과학적 근거 기반 환경보건 정책추진

- 세종시는 지속적인 지역 환경 관련 데이터, 인구 특성 통계 데이터 및 환경성질환자 수 발생 추이 등을 수집·분석하고,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우선순위 과제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민감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의 경우 세종시 민감취약집단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요 사업중 하나로 판단됨
-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여 센터 주요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두고 환경보건 업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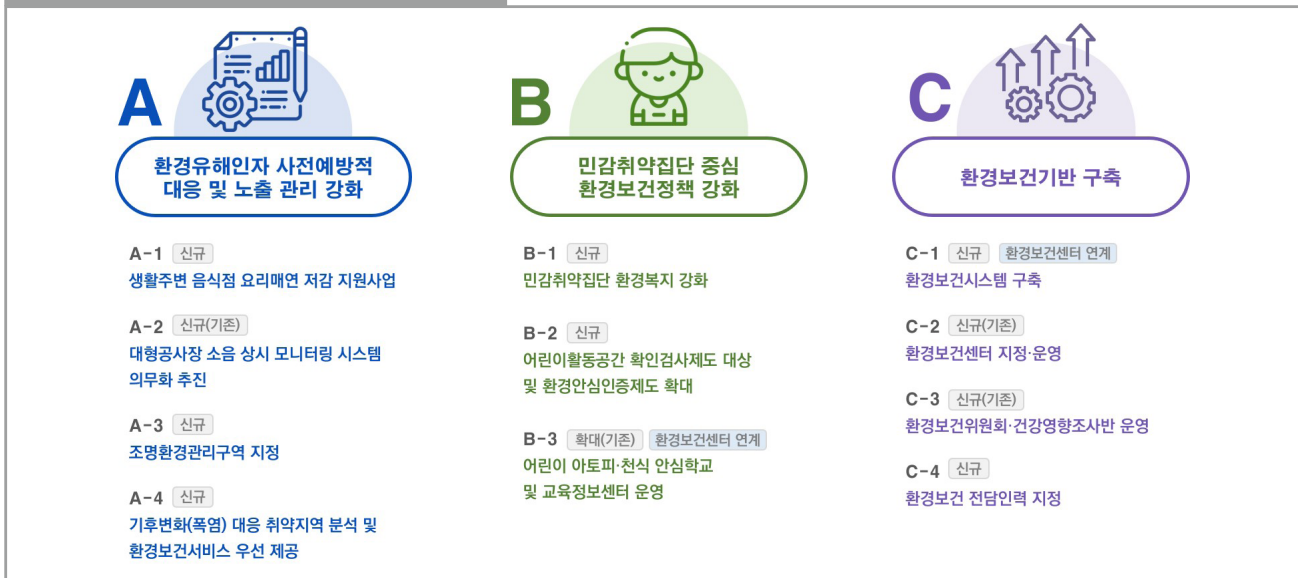
환경보건 시민교육·홍보 강화('기후리터러시' 강화)

- 지역의 특이성을 반영한 환경보건 정책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기후위기 취약집단인 어린이,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기후시민 양성이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해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기초 데이터 및 심각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이를 세종시의 주요 시민교육·홍보 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예: 세종한글축제, 세종축제 등에 부스 설치 및 교육자료 제공 등 추진)

III. 정책 제언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 11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기존 세종시 환경보건계획의 신규사업 중 내용을 구체화한 4개 사업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7개 신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 세종시 환경보건정책 추진과제 (안)





I. 논의 배경

● 한옥등 건축자산관련 법률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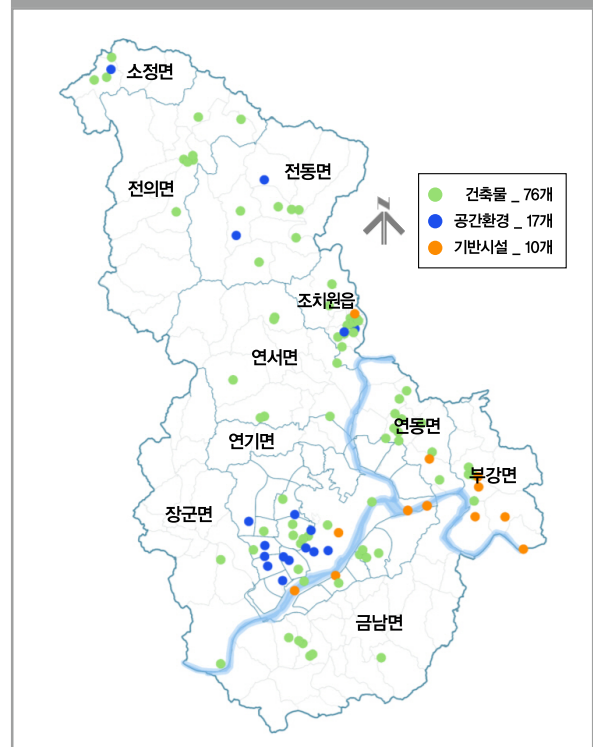
- 지역에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
- 2014년 6월,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 또는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을 제정함
- 이 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세종시는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제1차 세종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2018~2022년)”과 2024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2024~2028년)”을 수립함. 건축자산의 보존, 활용 및 조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그리고 기존 93개 건축자산 목록을 재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건축자산

-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함
-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함. 유형은 ‘건축물’, 주거지, 시장, 가로, 단지, 공원, 광장 등 ‘공간환경’, 교량, 철로, 정수장, 하천 구조물 등 ‘기반시설’ 등으로 구분됨

- 현장조사 시 주민인터뷰를 통해 멸실 이유와 현재 활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고 결과, 총 8개가 멸실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2018년 이후 등재된 국가 및 시 지정·등록문화유산 4개를 확인하고, 건축자산 목록과 비교하여 추출 및 제외함. 다음은 추가 건축자산 발굴단계로, 수상작과 문헌조사 등을 통해 32개를 발굴하였고, 마지막은 가치판단 단계로 후보군 32개를 대상으로 가치를 판단하여 최종 23개를 추출하였음
- 최종적으로 건축자산은 총 103개로 재구축되었고,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76개, 공간환경 17개, 기반시설 10개로 나타남

[그림 1] 세종시 건축자산 103개



II. 세종시는 103개의 건축자산 보유

● 건축자산 재구축

- 재구축 과정은 3단계로 진행하였음. 먼저 건축물 대장 확인 및 제외 건축물을 확인하는 단계로, 2018년 전수조사로 구축된 93개 건축자산을 데이터화 하고, 건축물대장과 폐소말소대장을 교차 검토하여 멸실 된 건축물을 추출함
- 농촌지역은 무허가건물 등이 산재해 있어 건축물대장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성·로드뷰와 현장조사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교차 검증함

● 지역별 분포

- 103개 건축자산 중 조치원읍에 16개(15.5%)로 가장 많이 분포하며, 면지역은 54개(52.9%) 신도심(동지역)은 29개(28.4%) 분포함
- 면지역 중에는 연동면이 14개(13.6%)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전동면 8개(7.8%), 전의면 7개(6.8%), 부강면 6개(5.8%) 순서로 나타나며, 동지역은 33개 자산이 있으며, 공동주택, 공원, 수목원, 한옥마을 등 공간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분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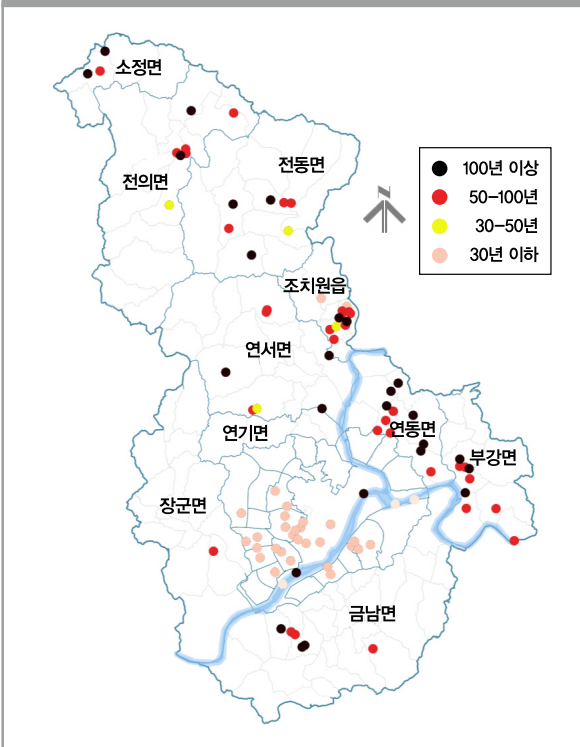
1) 이 글은 2024년 수행한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 기반하고 있음

세종시 (우수) 건축자산의 특징과 유형

조성시기별 분포

- 조성 후 50~100년 이하 된 건축자산이 38.5%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100년 이상의 건축자산은 22.9%, 30~50년 4.2%, 30년 이하는 34.4%를 차지함
- 신도심은 모두 30년 이하로 분포하고, 연동면과 부강면은 100년 이상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함

[그림 2] 세종시 건축자산 조성시기별 분포



주용도별 분포

- 주거시설로 이용 중인 건축자산이 40개(38.2%)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시설(교량, 페터널 등)과 공간시설(공원, 공동주택, 마을, 기념유적 등)이 각 13개(12.7%)로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 교통시설 10개(9.8%), 업무시설 9개(8.8%), 문화집회시설 8개(7.8%), 종교시설 6개(6.9%), 교육연구시설 7개(6.9%) 순서로 나타났음
- 숙박시설 1개는 조치원에 있는 행운여관으로 조치원에 등록된 숙소 중에 가장 오래된 곳이며, 체육시설은 신도심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임

Ⅲ. 세종시에 등록된 3개의 우수건축자산

- 우수건축자산은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할 경우 그 가치가 훼손·멸실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함

- 세종시 2024년 조치원 문화정원, 조치원 1927아트센터, 장육진 생가 등의 건축자산을 건축위원회 심의 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였음

① 조치원 문화정원

- 폐산업시설을 현대적 쓰임에 알맞게 “공간 역할”을 재부여한 곳으로, 세종시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 공간임
- 1935년부터 정수장으로 사용되다가 2013년 폐쇄된 시설과 담장으로 분리된 근린공원을 통합하여 시민들이 전시, 관람, 체험 등의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재생한 공간으로, 역사적·경관적·사회문화적 가치가 있음
- 지역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랜드마크 역할로 활용 가능하며, 공간 전체가 1930년대 조성된 모습이 양호하게 보존되어있어 건축사적인 가치 높음

② 조치원 1927아트센터

- 산업유산의 재사용(adaptive reuse)으로 여러 켠의 시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근현대기 조치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업시설(공장)로 1930년대 공장의 전형적인 형태인 목조 트러스 등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가 있음
- 근대건축유산인 한림제지 폐건물을 보존함과 동시에 훼손된 부분을 적절히 재현했으며, 지역의 문화적 거점으로 역할이 가능한 측면에서 활용 및 보존 가치가 높음

③ 장육진 생가

- 잘 보존된 120년 된 '동심의 화가' 장육진 화백 생가로, 1905년에 건립된 전통가옥으로 안채와 대문채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있어 근대역사와 예술적 가치가 높고, 한국미술 거장, 장육진 화백의 생가(6세까지 거주)로 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음
- 세종시의 역사예술적 가치와 더불어 전국의 사회문화적 가치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 가치를 알리는 랜드마크 역할로 활용 가능함

[그림 3]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3개



조치원 문화정원

조치원 1927아트센터

장육진 생가



<https://www.dsi.re.kr>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소담동)

Tel. (044) 550-3500 Fax. (044) 555-3599

발행인. 김영진 편집인. 이인희 등록번호. 대전유성, 바00015